

혀를 지배하는자 <유대인의 생활철학 4 편>

유대인의 사업 원칙 중에서 첫번째가 먹는 장사를 하라는 것과 여자를 상대하라는 것인데, 여자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란다. 작금의 금융위기로 장기 불황에 빠져 있는 한인 자영업들도 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은 동종 부류의 장사들이다. 그리고 재고 부담이 없는 사업들, 렌트비용 등 고정지출 비용이 적은 사업들, 시설투자, 사업 융자금, 재고 비용 등의 감가상각이 적은 사업들이 살아남는다. 즉 몸이 가벼운 사업들이다. 그리고 여성들 특히 중,상류층이 주고객인 사업들이다. 아니면 동일지역의 중소 경쟁업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사업이다. 나의 직업은 수백개의 사업체를 매물로 가지고 있으며 각각을 분석 비교하여 고객이 최상의 선택을 하도록 돕는 일이다. 물론 불황에 잘 되는 업종이라고 해도 천차만별이며 모두 잘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체의 성공과 실패에는 반드시 가게 자체에 원인이 있다. 지면에 그 원인들을 공개하지 못함은 그로 인해 피해보는 사업주들이 있을까 하는 노파심이다. 불경기가 장기화 될수록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진다. 따라서 불경기 동안은 지금 잘 되는 사업은 계속 잘 되고, 지금 안되는 사업은 점점 더 안될 것이다.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배로 갈아타야 한다.

유대인들은 <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는다. 태초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해와 달이 생기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로스 차일드 가문이 유럽의 금융 시장을 장악한 계기도 워터루 전투의 한발 앞선 정보 때문이었다. 이 가문의 경영 방침은 “그 나라의 혀를 지배하는 것은 머리를 지배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머리를 달라고 하면 화를 내지만, 혀를 달라고 하면 쉽게 내준다.”라고 한다. 유대인들이 19세기 철도와 전신 사업을 장악한 이유도, 세계 정보 통신 부분을 장악한 이유도, 컴퓨터와 인터넷 시장을 장악한 이유도, 세계 미디어 사업과 언론 사업을 장악한 이유도, 세계 식량을 장악한 이유도 모두 <혀의 권력>을 믿기 때문이다. 세계 5대 곡물회사가 지배하는 곡물 유통 시장은 전 세계 유통량의 80%이상을 차지한다. 세계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곡물의 80% 이상이라는 의미는 세계 인구들이 매일 먹어야만 하는 음식의 대부분을 의미한다. 세계 5대 메이저 곡물회사의 세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기업주가 모두 유대인이라는 것, 둘째는 철저한 가족 경영이라는 것, 셋째가 비상장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원칙은 유대인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다. 결혼도 사촌간, 친척간에 이루어진다. 집안에서 정해진 친척과 결혼을 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재산 상속권을 포기해야 한다. 또 모두가 비상장 회사들이므로 재무구조가 외부에 드러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얼마에 거래하고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지, 얼마의 돈을 벌어서 어디에 투자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지구상의 모든 현대인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일하고 채팅하고, 신문과 TV를 통해 정보를 얻고 휴식을 취하고, 쇼핑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유대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면 그들의 <혀의 권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의 고객도 <혀의 권력>이다.

또 유대인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토론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두개의 눈으로 결정하는 것 보다 여러개의 눈으로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철학은 <성벽을 거부함으로 성공한다.>는 것이다. 동양사에서 유일하게 모든 유럽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13세기 말 몽골제국의 칭기스칸은 “성을 축조하는 민족은 망할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성을 높이 쌓을수록 성안에 갇힌다는 것이다. 몽골민족은 기동성이 뛰어난 기마력으로 유럽의 성들을 무너뜨렸다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권위를 부정하고 의심하고 대항한 덕분에 기존시장의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어 성공한 민족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몽고족들은 <원>이라는 제국을 세우고 성을 만들고 권위를 높이다가 망하고 만다. 이점은 한국의 기독교도 반성할 문제다.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을 투자한 그 교회의 성벽은 누구를 위한 성벽이며 권위인가. 과연 예수가 기뻐할까. 결국은 그들의 권위요 욕망이요 교만이다. 또 다른 철학은 <인생의 마지막 한수를 마련하라.>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뒤쳐진 자들을 위한 완충지대가 없다. 위기의 순간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낙관은 무의미한 비판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낙관했다가 결과가 잘못되면 그때의 좌절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내 스스로 삶의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여 인생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희망과 유머>다. 살면서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은 마음가짐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냐, 위기를 실패로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다. 유대인들은 거창하게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그것만으로도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유머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히든카드가 아니다. 어차피 시련은 사람을 눈물나게 한다. 탈무드에 “울어도 눈물이 나고 웃어도 눈물이 난다. 이왕 흘릴 눈물이라면 웃다가 흘리는 눈물이 낫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숨겨놓은 마지막 한수다. 유명 코메디언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은 이유다. 나도 혼자 킬킬대며 코메디 프로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나이값도 못한다고 편잔이다. 남편의 깊은 뜻도 모르면서...